

I776 INSTITUTE

Newsletter

대한민국
건국 78주년을
축하합니다!!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106호 (선유도역 8번 출구)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2026 견미단' 일정 성료

1776연구소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한 '2026 견미단'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총 42명의 견미단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와이, 뉴욕, 프린스턴, 필라델피아, 애나폴리스, 워싱턴 D.C. 등 미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미국과 한국의 건국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토대를 공부했다. 하와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한인기독교회, 마우나라니 요양원, 오아후 공동묘지 등을 찾았다. 특별히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뉴욕에서는 세인트폴 대성당, 9·11 메모리얼 등을 둘러보고, 맨하탄 '영웅의 협곡'에 새겨진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프린스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 용한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와 이승만 렉처홀을 방문하며 미국 건국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연결성을 살펴보았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인디 펜던스홀과 리버티벨 등 미국 건국의 상징적인 장소를 탐방하며 독립선언과 헌정 질서의 의미를 배웠다. 이후 애나폴리스에서는 세인트존스대학교와 메릴랜드 주의회를 방문 했고, 워싱턴 D.C.에서는 연방대법원, 연방의회, 국립문서보관소, Family Research Council(FRC), 성경박물관 등을 견학하며 미국의 정치·법치·신앙 전통을 폭넓게 이해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미단은 현장 탐방과 강의, 워크숍, 토론, QT(성경 묵상)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미국 건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배우는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함께 성찰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의 정신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견미단 해단식 및 홈커밍 총회

7월 17일(금), '견미단 해단식 및 홈커밍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견미단 특별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2026 견미단 3기와 1·2기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탐방의 경험을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3기 견미단원들이 미국 현지에서 제작한 영상 모음집을 함께 시청하며 2주간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나경, 김찬승, 박수정 단원이 탐방 소감과 배운 점을 발표했으며, 김문수 전 장관이 참석해 견미단원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1776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총회가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연구소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1년간 추진할 주요 일정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 인사말

8.15 대한민국 '광복'을 축하합니다!

오늘 창 밖에 태극기는 다셨나요? 요즘은 아무도 태극기를 안 달아서 내가 달면 거의 주민 대표로 다는 것이라구요. 꼭 다셔서 우리동네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광복(光復)'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날은 1945년 8월 15일일까요, 아니면 1948년 8월 15일일까요? 1945년 8월은 일제로부터 '해방'한 것이고, 1948년 8월에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둘 중 '언제 우리나라가 빛(주권)을 되찾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일제 시대가 계속되었다면 우리나라가 건국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해방만 하고 정부수립, 즉 '건국'을 못했다면 그것도 빛을 되찾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본래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을 둘 다 기념하는 국경일이었습니다. 건국 초기, 전자는 '해방일'로, 후자는 '독립기념일'로 기념했지요. 그래서 1949년에는 '해방 4주년 및 독립 1주년'을 기념했고, 전쟁 중이었던 1950년에는 대구에서 '해방 5주년, 독립 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1949년 국경일을 제정하면서 이 두 날을 '광복절'로 부르기로 한 것이지요. 지금 '광복절'이 '1948년 건국'은 빼고 '1945년 해방'만 뜻하게 된 것은 사실 심각한 역사 왜곡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벌써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번 8월호 소식지부터는 구성이 하나 달라집니다. 1776연구소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이달 자유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대신 "Film & Book Curation"을 통해 이달의 추천 도서와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1776연구소가 공식 창립한 지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776연구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우남과 미국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알리는 데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광과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사편 78장4절)

아멘!

조평세 올림

FILM & BOOK CURATION

이 달의 영화 | 《오디세이》

2026. 8. 5 개봉 |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 주연 매트 데이먼 · 톰 홀랜드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 《오디세이》를 둘러싸고 개봉 전부터 보수 진영의 논쟁이 뜨거웠다. 다양한 인종의 배우를 기용한 캐스팅과 일부 배역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영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보수 논객들은 이를 '워크(woke) 영화'로 규정하며 관람 자체를 만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논객 벤 사피로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오디세이》를 높게 평가하며 "masterpiece"라고 극찬했고,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영화의 몇 가지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작품 전체가 담고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피로가 주

목한 것은 영화의 '문명적 가치'다. 《오디세이》의 중심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이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놓여 있다. 오디세우스가 끝없이 이어지는 유혹과 시련을 견디며 결국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여정은 가정, 충성, 책임, 귀환,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라는 오래된 보수주의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특히 영화가 보여주는 죄와 그에 따른 결과는 사피로가 중요하게 평가한 부분이다. 인간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며, 아무리 강한 영웅이라도 자신의 잘못과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파괴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과 가족을 향해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질서는 현대의 상대주의적 가치관과는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사피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디세이》가 성경적 도덕관과 자연법적 질서에 가까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물론 영화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피로 역시 일부 캐스팅과 각색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논란 때문에 영화 전체를 '워크'라는 한 단어로 규정해버리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오디세이》는 오늘날 할리우드의 많은 작품에서 보기 어려운 가정과 결혼, 고향에 대한 사랑, 도덕적 책임, 죄의 결과, 인간의 한계와 초월적 질서를 중심에 놓는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보수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완벽한 영화인가?'를 묻기보다,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어떤 가치가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볼 만한 작품이다. 놀란의 《오디세이》는 고대의 영웅담을 통해 결국 하나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며,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오디세우스의 답은 분명하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자신의 삶과 책임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 달의 책 | 《헤리티지》

고영혁 지음 | 이해와 계시 | 2026. 7. 10. 출간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경험했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우고,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선교를 이끄는 나라로 성장했다. 《헤리티지》는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여정을 120년의 역사 속에서 따라가는 책이다. 이 책은 역사적 사건과 연도를 나열하는 대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과 정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에 주목한다. 조선의 마지막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국전쟁, 그리고 정치·경제·신앙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펼쳐낸다. 특히 《헤리티지》는 "대한민국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기까지, 그 과정에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비전과 희생, 그리고 사명이 있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글이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장면을 그려낸다는 인상을 받는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았던 선각자들의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이어진 세 가지 기적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진다.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위대한 성공이었으나 잊혀진, 미국의 한국 선교



미국 주도의 개신교 선교는 기독교 역사상 한 나라를 가장 빠르고 철저하게 변화시킨 사례 중 하나였지만, 한국전쟁이 미국인들의 시선을 한반도로 끌어모을 무렵에는 이미 대중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단기간에 급부상해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고...

[월드뷰] 8월호_경제전쟁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간혹 두 귀를 의심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주로 비상식적인 이야기나 상황을 접할 때 그렇습니다. 최근 필자가 이런 경험을 한 건 지난 5월 26일입니다. TV 저녁뉴스에 정청래당 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출근길 직장인들을 향해 힘차게 외칩니다. "주식계좌에 있던 1,000만원, ...

8월 연구소 동정

제1회 KHC 역사캠프

1776연구소와 세상을이기는청년들(세이청)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KHC 역사캠프가 오는 8월 14일(금)부터 15일(토)까지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개최된다. KHC 역사캠프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 시대적 흐름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1회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6회의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등 세대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각 연령대에 맞는 효과적인 역사 교육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건국과정,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배우며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제2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

1776연구소와 세상을이기는청년들(세이청)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가 오는 8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울교회 수양관에서 개최된다. 'NICE OR GOOD'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독교적 진리의 차이를 살펴보고, 정치·외교·경제·과학 등 다양한 영역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각 분야의 강연과 나눔을 통해 오늘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을 배우고,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7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JOLlian Ji

강○은
권○운
권○현
김○강
김○경
김○리
김○림
김○수
김○수
김○승

김○애
김○애
김○연
김○연
김○영
김○은
김○은
김○은
김○중
김○주
김○준
김○혁

김○현
김○희
김○희
나○원
노○스더
도○현
문○아
민○환
박○기
박○민
박○배
배○사

베드○센터
변○연
변○현
서○민
서○현
성○술
소○숨이비인후과
손○광
손○은
손○은
순○음교회
송○교회

신○영
양○진
오○주
오○지
옥○명
원○슬
윤○옥
이○길
이○란
이○빈
이○성
이○운

이○은
이○희
양○연
이○임
이○창
이○철
이○현
장○O
정○교
정○아
정○용
정○원

정○진
정○한
정○혜
조○자
조○현
조○호
만○학교
차○옥
추○령
충○교회
한○다
한○희

허○영
허○은
홍○화
황○아
정○현
이○인
미주통○광장기도회
어○일
서○정
애○리
황○석
하○록

후원 안내



정기후원자님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주세요!
일시후원도 가능해요!
우리 1005-004-781904 (1776연구소)
(후원 문의: 010-5949-1776)

